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대학의 대법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동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불교신문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공부

여러분께서 인생에 대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을 안 하고도 알아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이 세상 이치를 다 적으니까! 이 세상을 볼 때에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너희는 마음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차원에 따라서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다 놓고, 네 몸까지도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 다 놓고 가되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고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고 선덕을 잘 쌓고,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공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거미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전부 여러분의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말을 해줘야만 알겠습니까? 허공은 허공대로 티 하나 걸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흘러 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같이 살아'고 하는 겁니다. 또 물은 물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집으로서 만생(萬生)을 이롭게 나가는 물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이 없이, 어떠한 차원도 그냥 흘러갑니다. 꼭 말을 해줘야 알습니까? 그것도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니라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나무들도 바람 부는 대로 날려

어지고 유하고 부드럽게 말아 나갑니다.

부모 자식이다 합치라도 한철 부모 자식일 뿐이지 그 한철이 지나면 그대로 빨 빨이 제가끔 몸도 다 놓고 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또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올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부모의 다른 자식이 되죠. 이걸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을 한다면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참나에 한 인생이 가고, 한참나에 인생이 생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한 철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과 모여서 놀러갔다고 합시다. 모여서 놀러갈 땐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놀 자리를 잡아서 즐겁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헤어집니다. 빨빨이 자기 갈 데로 다 가고 그 자리조차도 내놓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섭류도 다 그렇습니다. 저 혹성이나 해리성(행리해성)이나 또는 어떠한 별성이든, 혹성이든 간에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지금 아래로 꼭 보세요. 새들이나 토끼 같은 짐승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짧지만,

고, 항상 남의 발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이라! 워! 워!"하면서 똑바로 가게끔 고삐를 쥐어야 이 소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갈 수 없는 바로 자기 공부입니다.

항상 방편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집에 전화를 봐야 남한테서 전화를 받고 또는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과법칙이 라든가 또는 유전법칙이 라든가 이 모든 생명의 문제들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부터 아는 동시에 일체 만물을 들이고 내는 데에 유유히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정진계와 물질계를 작용하면서 베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

"너 똥 누러 갈 때도 뉘아 뉘아, 안 뉘아 뉘아 하고 가느냐? 똥 마려우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저렇지도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로 가서 시원하게 싸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배고프면 먹는 거 아니겠느냐? 졸리면 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여하게 사는 것이 바로 여래의 집 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여하게 산다고 해서 '여래'라는 얘깁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부처님들을 한데 합해서 바로,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니까 한데 합해서 여래의 집이요, 여래라고 한 겁니다. 배를 똑바로 저어서 감을 건넌다고 하는 것도 그 것도 잔소리입니다. 면경을 잘 닦아서 먼지 없이 없게 해야겠다는 것도 그것도 잔

없지만 수행을 해 나을 때 얘깁니다. '구렁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구렁이라면 모습이 구렁이인들 어떠리!' 즉 말하자면 내 어머니가 못나고 못 배웠다고 해서 남의 잘나고 잘 배운 어머니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어머니를 바꿀 수 없죠? 잘났든 못났든 말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따라가다가는 허방을 짚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서 거기까지 한자리를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들은 근본에 의해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본은 하나다, 하나로 돌아가는 게 바로 불바퀴라고 한다. 전력은 누구냐가 다 끌어 쓸 수 있는 것이야. 다 같이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밑습니까? 나로부터인데.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상업을 하든지, 과학자든지, 의사든지, 노동을 하든지, 뱃사공을 하든지 하야간에 못

니가 부드럽게, 즉 말하자면 마음이 밍고 원만하고 식구들과도 그렇고 남들과도 그렇고... 모두 그렇게 나가면 서로 인과가 되고, 즉 말하자면 원수도 되고 그것이 유전이 되니까 낭패가 되는 거죠. 죽고 또 죽어도 다시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제지리에다 되놓고 돌아가는 동시에 바로 나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물리도 터질 수가 있는 거고, 자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구 원망도 안 하고 악을 쓰고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속으로 미운 생각, 원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악을 쓰게끔 되죠. 그러면 벌써 인과가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아...

내가 한마디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자 해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잘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놓고, 수 억 겁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가지고 온 장본인, 주인을 진실히 믿고 죽어도 거기, 살아도 거기, 모든 게 거기서만이 돌아가는 겁니다. 태양계의 지구가 지금 꼭지 없이 매달려서 돌아가듯 말입니다. 우린 마음의 자력에 의해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한데 합쳐도 합친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이 못마땅해서 그거를 놓지 못하고, 합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왜 믿지 못합니까?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는대도 상국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자식이 죽는다, 부모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해도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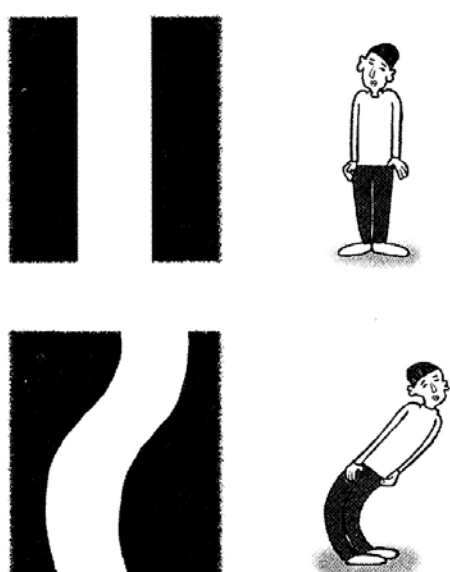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자라고 잘못된 사람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보면 분기 사라지고 인의로워져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심력을 길러야

서 아무리 뿌리가 뽕뽕하다 하더라도 말없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원만을 하면서 바람이 왜 부느냐, 왜 뿌리가 뽕뽕하게 하느냐, 왜 못살게 하느냐, 왜 눈이 오느냐, 왜 우박이 나한테 타격을 주느냐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던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처럼 말없이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꽃이 피었다 시드니 꽃잎이 다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씨를 만들어놓고는 그냥 앙당당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뽕뽕하고 뿌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 있습니까?

개미들이나 짐승들을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을 낳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고 이 끌어주고 똑바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다칠까봐 걱정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림살이가 다름습니까? 모습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지만 그 살림살이의 근본은 다 똑같은 겁니다. 개미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알잡아 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만생이 다 나와 같이 공생(共生)·공용(公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이다 하는 인연에 연연해 하고 애착을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 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말하지 않는 억겁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도둑질은 안 했겠습니까? 생명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습니까? 나쁜 짓은 안 했겠습니까? 모자라지 않았겠습니까? 병신이 안 되어봤겠습니까? 각종 각색으로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돌 아녀게 보라고 하는가 하면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 내 모습으로 보고,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과거에 잘못된 내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서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기가 없

도 수명이 아주 긴 것이 있고, 천차만별로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수명을 아주 단축시키는 것도 있고, 인간은 열 달이 돼야만 낳지만, 육 개월만에 낳는 것도 있고, 석 달만에 낳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여러 층으로 아주 많지 않습니까? 몇 주일 만에 낳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자면 기술자대로 모이고 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대로 모이고, 배를 타는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들과기 모여서 삼듯이 말입니다.

모두가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다 놓아버리는 주인공을 어떻게 믿지 않고 무시하겠습니까? 수 억 겁 전으로부터 생(生)이 생겨서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인간까지 이끌어 왔는데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공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나 별성이니 달, 어느 혹성을 막론해놓고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이 직결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내 살림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이름 아님이 없는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서로 주고 서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사는 전부 가설이 돼있는 근본이 바로 내 마음에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항상 '나 먼저 알아야 하고 나 먼저 발견해야 된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누구를 믿느냐고 하면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 하나를 켜봐도, 초를 켜는데 구부러져 가지고 한철이 기울어지거나 타 들어가거나 이러면 촛불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에 부분을 가위로 딱 잘라서 똑바로 해놓고 또 기울어지면 똑바로 세워놓으니까 한철이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마음으로 써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이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패를 자기가 쥐

고, 그냥 말로만 알고 머리로는 굴러고 이론으로만 딱 알아가지고 말을 아무 리 할 해도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을 떼어놔도 실천을 할 수 있는 심력을 길러서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풀어왔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이랬고' 하기 이전에 '내가 만법(萬法)을 들이고 내는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능가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그놈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 이 소립니다. 의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들이고 내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가는 길에 의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우리들 스승

바람은 말없이 살라하고 허공은 티 하나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라고 가르쳐

그래서 사대성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입니다. 망성이니 정법(正法)이니 사법(邪法)이니 하는 것도 다 망상입니다. 그대로 내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서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한꺼번에 이끌어 동굴에서 마음을 잘 쓴다면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좋은 입력이 됐으니 자동적으로 좋은 일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입력해서 그렇게 한 대로 나오는 거죠. '과거가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지금이 어떻게' 이렇게 말 들만 하지 말고, 과거의 씨가 현실의 싹을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 이 소립니다. 의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들이고 내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가는 길에 의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대성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공부라고는 할 거

났든 잘났든 자기가 근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높으니까, 비유를 하자면, 농사짓는 데 가면 농사꾼이 으뜸이요, 물에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요, 과학자한테 가면 과학자가 으뜸이요, 말입니다. 이래서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혼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높으니까, 개미도 개미 소굴에서는 높은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것이 제가끔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한데 섞여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맛 다르고 조거 맛이 다 다르지만 다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이리로 쏠리고, 저거 좋다 하면 저리로 쏠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기 때문에 듣는 대로 입력이 되니까요. 누가 이 병은 못 고친다고 하면 아주 입력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죠. '아니다'라는 생각이 중심이 서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할 탓이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약합니까? 집에 주인이 없으니 열마나 약하겠습니까? 주인이 있다면 딱 뚝치고 어떤 게 들어와도, 무슨 말을 해도 잘 리드해서 끌고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이 말 들는 대로 '인제 '죽었구나!' 죽실죽호 죽기 죽어'지'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태고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부 듣고 따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몸 속에 있는 그 수십 억의 의식들이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두뇌로 흘러가서 하달이 되거든요. 그럼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슨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자동적인 속명통, 즉 마음의 컴퓨터에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건실하고 건전하게 항상 갖고, 인연에 따라서 집착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여서 즐겁게 놀다가 즐겁게 헤어지는 거

없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열성을 가질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여래장(如來藏)이 되겠죠. 그런데 뭐이 답답하겠습니까?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질문자: 예, 저희들이 평소에도 의문 나던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인자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유전인자의 구조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왜 특별하나 하면 유전인자의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몇 가지 유전병의 치료방법을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로는 앞으로 10여 년 후면 수천 가지의 유전병과 불치병 중의 상당한 부분의 치료법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유전병 또는 불치병은 억겁을 거쳐서 오는 동안의 인과가 뭉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마음법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 즉 과학적인 치료법으로도 인과를 녹이는 이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이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전자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과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나드는 일이 되며, 나아가서는 인과의 법칙도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스승: 아무런 과학적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더라도, 그건 물질은 발견해낸 것이 어디서, 어떤 연결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왔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불치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건 이 이름을 떠나서 딱 걸로 옮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으로서, 즉 심성이 안 들어가고는 도저히 복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입력이 된 테다가 입력을 다 시 해아 입력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없었지 않아요. 그래서 나부터 알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나부터 알아야 모든 게 가고 옴이 없이 왕래를 하죠. 얼른 쉽게 말하자면 나부터 알아야 모두가 일치해서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